

재난피해자의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소득의 조절효과 -

심서영[†] · 손영우 · 박상현* · 윤지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11. 1. 접수 / 2016. 11. 18. 수정 / 2016. 12. 8. 채택)

Disaster Victims' Post-trauma Risk, Posttraumat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and Income as a Moderator -

Olivia S. Sim[†] · Young Woo Sohn · Sang Hyun Park* · Ji Won Yo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Received November 1, 2016 / Revised November 18, 2016 / Accepted December 8, 2016)

Abstract :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disaster victims' post-trauma risk and posttraumatic growth, and the mediational role of social support for this relationships. In addition, we tested the hypothesis that income status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 risk and subjective well-being. Two hundred disaster victims completed Post-trauma Risk Checklist (PRC), Posttraumatic growth scale, Social support scale and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as well as questions about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ults showed that those with high post-trauma risk demonstra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posttraumatic growth as compared to those with low post-trauma risk and social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is relationship. Also, high levels of post-trauma risk predicted low levels of recent subjective well-being. Participants with high income obtained higher subjective well-being than did those with low income among high post-trauma risk groups. Implications for post-trauma risk and posttraumatic growth are discussed.

Key Words : disaster victim, post-truma risk, posttrumatic grow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support

1. 서론

재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지진, 태풍, 화산과 같은 자연재난을 넘어 화재, 붕괴, 침몰 등의 사회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안전대책, 재난피해자 회복을 위한 서비스 개발 요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재난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외상(trauma)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외상은 개인의 삶을 강하게 뒤흔들만한 아주 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뜻한다¹⁾.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급성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안증세 등을 겪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부정적 증상을 호소하는 건 아니다. O'Leary와 Lckovics²⁾의 연구에

의하면, 외상사건 이후 사람은 크게 네 경우로 분류되어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사건 이후 기능 수준이 매우 저하되어 병적상태로 빠지는 경우, 사건이후 회복을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기능저하를 보이는 경우, 사건 전으로 회복하는 경우, 그리고 오히려 사건 전보다 더욱 성장하여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파악하여, 보호요인은 강화시키고 취약요인은 제거하거나 완충하는 것이 추후 예방 및 개입에 있어 최우선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O'Leary와 Lckovics²⁾ 모델 중 외상 후 긍정적 심리변화를 보인 마지막 경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후

[†] Corresponding Author : Olivia Suhyung Sim, Tel : +82-2-2123-4045, E-mail : shushu402@naver.com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위기와 삶의 적응을 검증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외상연구는 대부분 신체적 폭력, 성폭력, 암 질환 등을 겪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재난연구는 소방관 등 재난구조관계자를 대상으로 삼았거나 해당 재난이 발생한지 2년 이상 경과되어 측정에 어려움을 지닌 연구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외상과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를 측정하고, 예측변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요 연구문제로 두었다. 즉,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외상 후 위기의 작용 기제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선행 연구를 개관한 후 위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잠재적인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외상 후 성장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외상 후 성장이 없다고 해서 재난 후 삶을 불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³⁾. 매우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사건에 노출된 이후, 일반적으로 개인은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지만, 그 수준은 개인적 특성, 외상 경험요인, 회복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달라지기 때문이다⁴⁾.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외상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지지만, 이 관계를 더욱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소득의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1.1 외상 후 성장

재난피해자 중에는 재난을 발판으로 삼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는 외상 후 성장(Post Traumatic Growth; PTG)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외상을 경험한 뒤 외상경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넘어서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외상 후 성장을 한 사람들은 인생의 유한함을 체험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통찰함에 따라 자기상, 대인관계, 삶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인생의 주요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때론 영적인 변화를 피하기도 한다. 외상 후 성장 개념수립에 있어 중요한 점은 ‘주관성’이다. 사건 자체의 객관적 특성보다는 개인의 지각, 그에 따른 부정적 심리반응을 기반으로 외상을 정의하기에 좀 더 폭넓고 주관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5,6)}.

외상 후 성장 관련 여러 이론적 모형중 Tedeschi와 Calhoun의 모델은 외상 후 성장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평가 된다^{5,7)}. 외상사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의 신념과 목표, 세계관을 뒤흔들어 무너뜨린다. 개인은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와 같은 혼란스러운 삶

의 이야기를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처음에는 자동적으로 사건에 대한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가 반복되는데,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를 통해 점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현재 취할 수 있는 태도, 행동은 무엇인지 등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로 넘어가게 된다. 마침내, 개인은 기존의 목표와 세계관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음을 깨닫고 새롭고 정교한 삶의 도식을 재건하고 발전시켜 외상 후 성장을 하게 된다.

외상 후 성장과 PTSD는 한 연속선상에서의 극과 극 개념으로 이해되기 쉽다. 긍정적인 성장 개념과 부정적인 장애증상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기존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³⁾에 따르면, 외상 후 성장 영역과 일반적인 정서적 적응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개별 개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로, 외상 후 성장과 심리적 적응은 공존이 가능하다^{8,9)}. 같은 맥락으로, 외상 후 성장과 주관적 안녕감 간 부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¹⁰⁾,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더 팽배한 상황이다^{11,12)}.

1.2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설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중국 원환 대지진 생존자들은 지진노출강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았는데, 연구진은 재난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재난을 경험할수록 정서적 도움을 요청하고, 가족, 친구,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결국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¹³⁾. 외상 사건 이전에는 좀처럼 시도하지 못했던 자기노출이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평소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게 되는데, 이 자기노출 과정을 통해 개인은 감정의 해소와 위안을 얻고 친밀감과 사회적 지지 체계는 더욱 견고하게 구성되는 것이다¹⁴⁾. 즉, 외상 후 위기가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까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충효과(buffering effect)이다. 사회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 결과 정서적 고통이 완화되어 개인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¹⁵⁾. 둘째,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경험에 대해 대안적 관점을

제공한다.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는 종종 긍정정서를 유발하고, 이는 Fredrickson¹⁶⁾의 확장-수립이론(The broaden-and-build theory)에 따라 사고-행동 레퍼토리를 확장시켜 외상으로 인해 내 삶이 더욱 발전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능동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끼쳐 성공적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¹⁷⁾. 자기조절능력, 능동적 대처능력은 외상 후 성장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¹⁸⁾, 외상 후 회복의 사회적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of posttraumatic recovery)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를 받은 개인은 높아진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고, 이를 근간으로 발달된 능동적 대처능력은 역경으로부터의 회복을 강화시킨다¹⁷⁾.

1.3 외상 후 위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소득의 조절효과

기존 재난피해자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적 증상을 준거로 삼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임상 수준까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보다 삶의 만족감이 저하되어 있는 피해자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진단준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연구와 치료 두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존재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적응도 대신 일상생활에서의 적응도를 측정하기로 하였고,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하여, 다양한 수준의 재난피해자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Ed Diener¹⁹⁾가 주창한 단어 및 개념으로 쉽게 말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상과 삶의 질에 대해 연구한 문헌들을 해보면, 재난 후 위기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낮게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²⁰⁾.

여러 외상연구를 살펴보면, 외상 후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중 하나는 소득이다²¹⁾. 사회경제적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대표변인인 소득은 재난피해자에게 현실적,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저소득층은 재난으로 인한 집 붕괴, 실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자력으로 빠르게 회복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난으로 인한 집수리, 재건, 이주 등의 비용이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대를 이어가기도 한다²²⁾. 이미 재난 전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적절한 자원과 심리적 안정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재난으로 인한 가중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양한 부적 심리증상을 보이기 쉽다²³⁾. Footergill와 Peek²⁴⁾은 재난 후 단계에 있어 사회경제적수준을 신체와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지목하였다. 가난할수록 더 사망자, 부상자가 많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많이 겪으며, 재난 반응단계, 회복단계에서 더 많은 장애를 경험한다. 수년전, 국

내에서도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강남의 한 고급아파트에서 헬기충돌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난피해자들은 집이 수리될 때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에 크게 타격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재난으로 집을 잃었을 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군부대, 인근 중고등학교, 종교시설 등의 임시거주시설에 입소 후 간단한 식사로 끼니를 해결하며 불편함을 겪는 일반적 상황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동일하게 외상 후 위기가 클지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재난피해자의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외상 후 위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소득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이 클 것이다.

둘째,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

셋째, 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것이다.

넷째, 외상 후 위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소득이 조절할 것이다.

2. 실험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의정부화재사건 피해자 50명과 2014년 부산침수사건 피해자 150명을 합하여 총 200명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 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었다. 조사원들은 연구자들과 훈련된 연구보조원들로서 제 1차 자로부터 사전에 연구목적, 자료수집시 주의사항 등 관련 교육을 받았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정도 였으며, 이 중 응답에 성의가 없거나 한 문항이라도 무응답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15부를 제외한 총 185명의 자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측정도구

각 측정도구는 해당항목 측정에 있어서 신뢰도, 타당도 측면에서 높은 값을 갖는지와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2.2.1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PRC)

외상 후 위기체크리스트(Post trauma Risk Checklist; PRC)는 주혜선과 안현의²⁵⁾가 개발한 척도로 5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16점이하는 저위기 수준으로 보고, 17점-26점은 중위기 수준, 27점 이상은 고위기 수준으로 분류한다. 하위요인은 개인영역, 외상영역, 회복환경영역 등 3요인으로 이뤄져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95, .78, .91로 나타났다.

2.2.2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는 Tedeschi와 Calhoun¹⁾이 개발한 척도로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외상 경험 후 긍정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측정하며, 각 문항에 대해 0-5점(0점: 경험 못하였다, 5점: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사이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 변화에 대한 보고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지각변화, 대인관계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 발견, 영적관심증가 등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90, .93, .87, .64로 나타났다.

2.2.3 주관적 안녕감

서은국과 구재선²⁶⁾이 개발한 단축형 주관적 안녕감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척도는 크게 정서와 삶의 만족도라는 2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두 번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한번은 지난 한 달간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였고 한번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 한 달간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난 한 달간의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Cronbach's α 는 각각 .92, .96, .94였고, 재난 전 한 달간의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Cronbach's α 는 각각 .88, .95, .88이었다.

2.2.4 사회적 지지

박지원²⁷⁾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산 침수피해사건을 경험한 당시의' 혹은 '의정부화재사건을 경험한 당시의' 주변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 지지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지시문으로 시작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질문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한 것으로 해

석한다. 본 척도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총 4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91, .88, .91, .82로 나타났다.

2.2.5 소득

'월급, 이자소득 등 모두 포함하여 당신 가계의 소득 수준은 어떠합니까?'라는 단일문항을 통해 소득을 측정하였다. 0원-199만원까지를 저소득, 200만원-399만원 사이를 중소득, 400만원 이상을 고소득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p < .05$ 수준일 경우 그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로 수집된 변인들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외상 후 위기집단별로 성별, 연령, 교육, 소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분석을 사용하였고, 이후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을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aron과 Kenny²⁸⁾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위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두 변인간 관계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실험결과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가한 재난피해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만 56.19세 ($SD=17.12$)였다. 성별은 남성 105명(57%), 여성 80명(43%)로 나타났고, 참가자의 113명(61%)이 기혼상태였고, 나머지는 미혼, 사별, 동거, 이혼, 별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이 38%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28%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집단이 27%로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3.2 외상 후 위기 수준별 성별, 연령, 교육, 소득 차이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재난 피해자를 저위기집단, 중위기집단, 고위기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각 집단 간에 성별, 연령, 교육, 소득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분석결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isaster victims

		High post-trauma risk (n=70)	Moderate post-trauma risk (n=62)	Low post-trauma risk (n=53)
Gender	Male	38	35	32
	Female	32	27	21
Age	20-30s	6	14	13
	40s	9	7	8
	50s	14	16	15
	More than 60s	41	25	17
Education level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e	37	20	21
	High school graduate	25	25	20
	More than college	8	17	12
Income status	Low	48	21	19
	Moderate	13	26	10
	High	9	15	24
Marital status	Single	6	13	11
	Married	39	42	36
	Divorced/Widowed	25	7	6

과, 세 집단 간에 성별과 학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s > .05$. 반면, 연령, 소득수준과 외상 후 위기수준 그룹 간에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연령집단(20-39세)은 저위기 그룹에 많이 분포되어있고, 고연령집단(60세이상)은 고위기 그룹에 많이 분포되어있었다. 학력은 무학, 초졸, 중졸을 1집단으로, 고졸을 2집단으로,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을 3집단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외상 후 위기수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s > .05$. 소득의 경우, 저소득집단의 56.0%가 고위기 집단에 있었고, 중소득집단의 51.9%가 중위기 집단에 있었으며, 고소득집단의 50%가 저위기 집단에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외상 후 위기수준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3.3 변인들간 상관

재난피해자의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소득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

($r=.37, p<.01$), 최근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r=-.35, p<.01$), 사회적 지지($r=.16, p<.05$), 소득($r=-.37, p<.01$)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관계, ‘외상 후 위기’와 사회적 지지 관계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상 후 위기’와 최근 한 달간의 주관적 안녕감 관계, ‘외상 후 위기’와 소득 관계는 부적(negative) 상관을 보였다. 반면, 외상 후 위기와 재난 전 한 달 간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설 1, 3을 지지하는 결과로써, 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은 크고, 주관적 안녕감은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외상 후 위기에 따라 외상 후 성장이 달라지며, 그 사이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Baron과 Kenny²⁸⁾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외상 후 위기가 매개변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

Table 2. The mediational role of social support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post-trauma risk and posttraumatic growth

Step	Predictor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F
Step1	post-trauma risk	social support	.23	.10	.17	2.34*	.03	5.46*
Step2	post-trauma risk	posttraumatic growth	.59	.11	.37	5.42***	.14	29.36***
Step3	post-trauma risk	posttraumatic growth	.46	.10	.29	4.86***	.39	58.30***
	social support		.60	.07	.51	8.68***		

N =185. * $p < .05$, *** $p < .001$.

로 유의하였고($\beta=.17, p<.05$), 외상 후 위기가 종속변인인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37, p<.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51, p<.001$), 외상 후 위기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beta=.37$)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29$).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bel²⁷⁾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ab=2.11, p<.001$).

3.5 외상 후 위기와 최근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소득의 조절효과

외상 후 위기에 따라 재난피해자들이 최근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 관계가 소득에 따라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은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계 분석방법이다. 회귀분석 결과, t 값은 $-5.06(p=.000)$ 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외상 후 위기가 최근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 후 위기가 높을수록 최근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25.59 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123$ 으로 12.3%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후,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일차 독립변수로 외상 후 위기를 원칙도의 진단준거에 따라 저위기, 중위기, 고위기 총 세 집단조건을 설정하였고, 이차 독립변수로 소득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조건으로 나누어 놓고, 외상 후 위기 \times 소득을 상호작용항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으로 최근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을 입력하였다. 그 결과, 외상 후 위기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여, 저위기집단($M = 21.45, SD = 8.35$)이 중위기집단($M = 18.33, SD = 8.76$), 고위기집단($M = 12.86, SD = 10.19$)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F(2, 179) = 4.88, p < .01$. 또한 고소득 집단($M = 21.88, SD = 8.42$)이 중소득집단($M = 16.02, SD = 9.53$), 저소득집단($M = 15.20, SD = 9.98$)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F(2, 179) = 5.59, p < .01$. 마지막으로 외상 후 위기와 소득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4, 179) = 2.66, p < .05$. Fig. 1을 보면, 중위기 수준일 때는 소득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저위기수준 혹은 고위기수준일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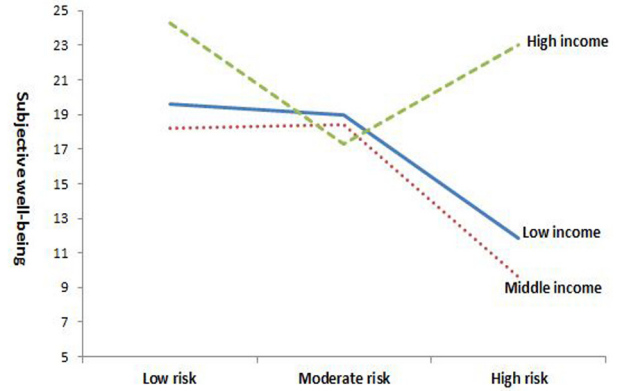


Fig. 1. Mean scores of subjective well-being as a function of post-trauma risk and income level.

고소득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었다. 아울러, 외상 후 위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소득이 조절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기존문헌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결과로써, 사회적 지지가 단순히 재난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을 넘어 성장을 돕는 강력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외상 후 위기가 클수록 지난 한 달간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외상 후 위기가 크든 작든 재난발생 전 주관적 안녕감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최근 한 달간의 주관적 안녕감에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재난이 발생하지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8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소득이 외상 후 위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외상 후 저위기 수준과 고위기 수준일 때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사회 경제적 수준은 교육 수준, 건강, 주관적 안녕감은 물론이고 정신병리에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데²⁹⁾, 재난환경에서도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측정방법의 제한이다. 재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난 전과 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이 가진 '예측불가'라는 고유특성상, 재난 전 상황을 측정할 때는 회고방법에 의존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부정확한 회고 등 오염변인이 섞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 등을 실시함으로써 본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요구된다. 재난피해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재난이 외상에 미치는 영향, 관련 변인을 검토한 결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맞서기 위해 인간은 방어기제로 사회적 지지와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재난 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려 한다는 모습을 밝혀 재난피해자와 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상 후 위기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지지가 매개한다는 것을 밝힌 점은 상담 및 임상과 같은 응용심리학의 실제장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발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심리사회적 구조서비스는 경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단발성으로 획일화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제한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 피해자별로 나타나는 심리적 양상을 이해하고,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및 경제적 보상정책을 개발한다면, 제한된 인력, 금전자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재난 피해자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결과가 이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References

- 1) R. Tedeschi and L. Calhoun.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Vol. 15, No.1, pp. 1-18, 2004.
- 2) O. Leary, E. Virginia and J. R. Ickovics, "Resilience and Thriving in Response to Challenge: An Opportunity for a Paradigm Shift in Women's Health", *Women's Health*, Vol. 1, No.2, pp.121-142, 1994.
- 3) T. Zoellner and A. Maercker,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6, No.5, pp.626-653, 2006.
- 4) B. L. Green, J. P. Wilson and J. D. Lindy, "Conceptualiz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Psychosocial Framework." *Trauma and its Wake*, Vol.1, pp.53-69, 1985.
- 5) H. J. Yu,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Deliberate Rumination in the Influence of Resilience and Distress Perception on Posttraumatic Growth",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1, pp.59-85, 2014.
- 6) A. Sawyer and S. Ayers,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After Childbirth", *Psychology and Health*, Vol. 24, No. 4, pp.457-471, 2009.
- 7) Y. J. Lee and N. W. Chung, "A Review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3, No.1, pp.1-23, 2008.
- 8) H. Tennen et al., "Perceiving Control, Construing Benefits, and Daily Processes in Rheumatoid Arthriti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Vol.24, No.2, 1992.
- 9) N. D. Wild and S. C. Paivio, "Psychological Adjustment,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as Predi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Vol.8, No.4, pp. 97-122, 2004.
- 10) P. Frazier, A. Conlon and T. Glaser, "Positive and Negative Life Changes Following Sexual Assaul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9, No.6, pp. 1048-1055, 2001.
- 11) M. J. Cordova et al.,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Breast Cancer: A Controlled Comparison Study", *Health Psychology*, Vol.20, No.3, pp. 176-185, 2001.
- 12) S. Powell et al., "Posttraumatic Growth After War: A Study with Former Refugees and Displaced People in Sarajevo",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59, No.1, pp.71-93, 2003.
- 13) Y. Jin et 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Adult Survivors of Wenchuan Earthquake after 1 Year: Prevalence and Correlate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28, No.1, pp.67-73, 2014.
- 14) U. J. Kim, "The Effect of Self Disclosure on Posttraumatic Growth in Glaucoma Patients: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Intentional Rumination", *Korean Journal of Gestalt Counseling*, Vol.5, No.1, pp.41-57, 2015.
- 15) M. C. Astin, K. J. Lawrence and D. W. Fo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Battered Women: Risk and Resiliency Factors", *Violence and Victims*, Vol.8, No.1, pp. 17-28, 1993.
- 16) B. L. Fredrickson,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56, No.3, pp. 218-226, 2001.
- 17) G. Prati and L. Pietrantonio, "Optimism,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as Factors Contributing to Posttraumatic Growth: A Meta-analysis", *Journal of Loss and Trauma*, Vol.14, No.5, pp.364-388, 2009.
- 18) S. C. Danhauer et al., "Predi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 in Women with Breast Cancer”, *Psycho Oncology*, Vol.22, No.12, pp.2676-2683, 2013.
- 19)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y Bulletin*, Vol.95, pp.542-575, 1984.
 - 20) S. Madakasira and K. F. O'Brien, “Acut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Victims of a Natural Disaste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75, No.5, pp.286-290, 1987.
 - 21) C. R. Brewin, B. Andrews and J. D. Valentine, “Meta-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auma-expose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8, No.5, pp. 748-766, 2000.
 - 22) M. Masozera, M. Bailey and C. Kerchner, “Distribution of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Across Income Groups: A Case Study of New Orleans”, *Ecological Economics*, Vol.63, No.2, pp.299-306, 2007.
 - 23) K. Kaniasty and F. H. Norris, “Distinctions that Matter: Received Social Suppor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ocial Embeddedness after Disasters” *Mental Health and Disasters*, pp.175-200, 2009.
 - 24) A. Fothergill and L. A. Peek, “Poverty and Disasters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Recent Sociological Findings”, *Natural Hazards*, Vol.32, No.1, pp.89-110, 2004.
 - 25) H. S. Joo and H. N. Ah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osttrauma Risk Checklis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27, No.1, pp.235-257, 2008.
 - 26) E. K. Suh and J. S. Koo,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5, No.1, pp.96-114, 2011.
 - 27)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Yonsei University, 1985.
 - 28)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 29) N. Choi, J. Byun, D. Han and S. Im. “Psychological Impact and Depressive Response of Sufferers of Natural Disas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6, pp.139-149, 2007.